대만불교 호스피스, 日불교계도 '주목'

일본임상종교사회, 타이베이에 연수단 파견

박영빈 객원기자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를 정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불교정신으로 활동하는 '불교호스피스'. 지난 8월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불교호스피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대만과 이를 본받으려는 일본 불교계의 현황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1월 일본 종교계 호스피스협회인 '일본임상종교사회'는 부회장 오시타 다이엔(大下大圓) 스님을 인솔로 의료계·종교계 관계자 10인의 연수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다이엔 스님은 "대만은 일찍이 불교호스피스가 발달했고, 이미 선진화됐다. 대만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시찰 의의를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유돼야 할 고통의 하나로 '정신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도 이에 포함된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근간한 호스피스가 발달, 성직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이에 힘입어 종교계를 중심으로 호스피스가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종교를 가리지 않는 '임상종교사'가, 대만에서는 스님들을 특화시킨 '임상불교종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접근법과 그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정신적인 케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초고령사회 일본, '죽음' 화두
"대만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
대만서 자택방문 호스피스 등
출가자 전문적인 역할 모색

타이베이의 중심에 자리한 대만대학병원. 6층에 자리 잡은 호스피스 병동에 일본 시찰단이 방문했다. 대만 최고의 대학이 세운 병원으로 공립병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곳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마친 스님들이 상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대만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다이엔 스님(왼쪽 사진). 오른쪽은 환자 사망 후 8시간 동안 염불해주는 조념염불(助念念佛)을 위해 만들어진 병원법당.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연수단을 안내한 첸칭유(陳慶餘) 명예교수는 "스님들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의료진들도 불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환자가 안심하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성(佛性)'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같은 병원의 의사 차이자오쑨(蔡兆勳)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기에 인생의 의의와 가치, 목적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호스피스는 환자를 성장시키는 치유"라고 평가했다.

호스피스 병동을 돌아본 다이엔 스님은 "일본은 인구의 30% 정도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죽음이 많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기 직전이다. 일본의 불교호스피스 도입은 대만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라고 불교호스피스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서 대만 불교호스피스 단체에서는 새롭게 진행 중인 활동을 소개했다.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해 퇴원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호스피스다.

지난 2013년 대만대학병원에서 상주하며 충분한 경험을 쌓은 스님들과 간호사들이 독립해 세운 이 호스피스 활동은 지난해까지 209명의 환자를 돌봤다. 방문호스피스로 활동 중인 비구니 종둔(宗惇) 스님은 "종종 심경의 변화로 더 이상의 방문을 거절하는 환자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인욕하는 마음으로 환자분의 마음이 열리길 기다린다"며 호스피스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말했다.

시찰 마지막에 열린 양국 불교호스피스간의 정보교류에서 대만대학병원 차이자오쑨 주임은 "2000년도에 처음 불교호스피스 양성이 시작됐다. 그리스도교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호스피스 전통에 불교정신을 도입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일본 종교계의 호스피스 활동은 2012년 동일본대지진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종교인들이 모인 것이 발단이 됐다.

양국은 또 "아직 불교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며 특히 출가자가 호스피스 활동을 할 경우 겪는 여러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역할이 먼저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연수에 참가한 일본의 타마오키 묘유(玉置妙憂) 스님은 "출가 전에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스님에게 하는 말과 간호사에게 하는 말은 명확히 그 차이가 있다"며 "타종교나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출가자에게 갖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찰에서 양국은 점점 주목받는 불교호스피스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자"며 의기투합했다.

"이슬람 기도 소리 커" 항의한 불교도 실형

인도네시아서 모독죄로 1년 6개월 금고형 처해

'일상생활 지장' 호소했지만
재판부 '특정종교 대립' 판단
이슬람 단체들 "지나친 판결"

8월 23일 '더 데일리 자카르타' 'AFP 뉴스'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불교도 여성이 이슬람 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서 현지 이슬람 단체들도 지나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카르타주(州), 탄중발라이시(市)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메일리아나 씨(44)는 집근처의 모스크에서 울리는 '아잔(이슬람교에서 예배시간을 알리는 기도소리)'의 스피커 음량이 너무 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새벽부터 큰소리로 울리는 아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

이 소식이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불교도의 항의로 아잔이 금지됐다'는 거짓뉴스로 와전되면서 지역 무슬림들이 분노했다. 일부 과격 무슬림들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불교사찰과 도교사원를 습격, 방화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사건은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나서 '모스크에서 방송하는 아잔음량을 조절할 것'을 지시하면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단체를 통괄하는 '이슬람 학자회의'가 메일리아나 씨를 기소했다.

8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법정은 "피고는 특정종교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감정을 내세운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흐드라툴 울라마'의 로비킹 이사장은 "아잔의 음량이 크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특정 종교나 공동체를 향한 증오표현이나 적대자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소음에 대한 항의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건강이상설 확산… 전립선암 말기

미국서 치료 중 정보 누설
티베트 망명인 결집력 '비상'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83·사진)가 전립선암 말기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티베트 망명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일 경우 망명인들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8월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인도 뉴델리지국 발 보도를 통해 "달라이 라마가 현재 전립선암 말기이며 이에 따른 티베트 망명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이 같은 건강이상설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달라이 라마의 미국 치료 과정 중 건강 정보가 누설된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스위스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인도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치료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누설된 것으로 알려져 티베트 망명정부에서는 스위스 측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티베트 망명인들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출처=thedailybeast

최근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5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치료를 받았고, 2016년에도 미국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지난 6월에도 한 인도 언론이 달라이 라마의 전립선암 말기설을 제기한 바 있다.

달라이 라마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됨에 따라 수년 내 사망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만약 달라이 라마가 사망할 경우 티베트 망명인들의 결집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1959년 달라이 라마 인도 망명 후 약 13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중국을 탈출해 망명, 현재 약 8만5000명이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결국 티베트 망명 정부가 올 연말 달라이 라마 후계자를 뽑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톱상 상가이 티베트 망명 정부 총리는 "각파 고승들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모여 달라이 마라 15세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 방법은 비밀투표 혹은 달라이 라마 14세의 지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 후계 선출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승려, 경내서 9살 소년 폭행

"법회 중 장난" 결국 사망

태국의 한 승려가 경내에서 9세 소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8월 2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깐짜나부리주(州) 한 사원의 수파 차이 수 티야 노(64) 스님은 소년을 대나무 막대기로 가격하고, 기둥을 향해 그의 머리를 힘껏 밀쳤다. 수련을 위해 절에 머무르던 소년이 법회 도중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자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진다. 소년은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외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3일 숨졌다는 게 익명의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소년의 시신은 현재 부검 중이다.

스님은 지난 26일에 성직을 박탈당하고, 며칠 후 폭행죄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확인되면 '폭행치사죄'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년의 어머니 수쿤야 턴힘은 "승려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 1통
가족관계증명서 …… 1통
혼인관계증명서 …… 1통
주민등록등본 …… 1통
주민등록초본 …… 1통
범죄경력조회 ……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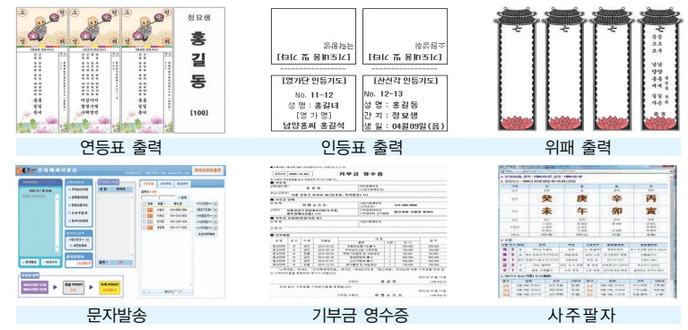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